



‘18세 킬러’ 손흥민 24일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발표한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된 손흥민(함부르크)이 지난 22일 제주에서 훈련하고 있다. 손흥민은 18세로 이번 대표팀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연합뉴스

‘젊은피’로 아시안컵 노린다

■ 축구대표팀 23명 최종엔트리 발표

손흥민 발탁 ... 박지성·박주영·이청용 합류

2011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현지시간 2011년 1월7~29일·도하)를 앞둔 조광래호가 평균연령 25세의 ‘젊은 피’로 무장하고 51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은 2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시안컵에 나설 23명의 최종엔트리를 발표했다. 조 감독은 일찌감치 예고한 대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AS모나코), 이청용(볼턴), 기성용, 차두리(이상 셀틱), 조용현(알 라이안), 이정수(알 사드), 이영표(알 힐랄) 등 유럽과 중동과 선수 8명과 정성룡(성남),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용태(서울) 등 골키퍼 3명을 합쳐 11명이 예정대로 명단에 포함됐다.

제주도 전지훈련 막판에 대표팀 승선을 예고했던 손흥민(함부르크)은 측면 백업 공격수로 뽑히면서 이번 대표팀 선수 가운데 최연소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됐다. 가장 나이가 많은 33살 이영표와 15살이나 차이가 난다. 대표팀의 평균연령은 25세로 지난 2010 남아공월드컵 때 27.5세보다 무려 2.5세나 젊어졌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내다본 조 감독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대목이다. 또 스트라이커 지동원(전남)과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구자철(제주), 윤빛가람(경남) 등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주인공들도 조광래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K-리그 소속 선수 가운데에선 올해 정규 리그에서 22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오른 유병수가 눈에 띈다. 유병수는 지동원, 박주영과 함께 최전방에서 투톱을 이룰 후보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쳐야 한다. 또 조광래 감독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196cm의 장신 김신욱(울산)을 비롯해 오른쪽 풀백에서 차두리와 경쟁하는 최효진(서울), 이용래, 황재원(이상 수원)을 발탁했다. 이영표의 백업 요원으로 오른쪽 풀백에서 경쟁을 펼칠 이용래(수원)는 이번 제주도 전지훈련에서 윤석영(전남)과 치열한 경합을 펼친 끝에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아시안컵 대표팀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해 26일 오후 2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발한다. 대표팀은 오는 30일 시리아와 아부다비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또 내년 1월 4~5일 사

아시안컵 최종 명단

▲GK = 정성룡(성남) 김용태(서울)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DF = 광태휘(교토) 이정수(알 사드) 조용현(알 라이안) 이용래 황재원(이상 수원) 이영표(알 힐랄) 최효진(서울) 차두리(셀틱) ▲MF = 윤빛가람(경남) 구자철(제주)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성용(셀틱) 이청용(볼턴)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염기훈(수원) 손흥민(함부르크) ▲FW = 박주영(AS모나코) 지동원(전남) 유병수(인천) 김신욱(울산)

이에 UAE 클럽팀과 한 차례 평가전을 더 치르고 나서 내년 1월 6일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연합뉴스

서재응 3억3천만원 ‘도장’

이종범 7천만원 삭감 1억9천
윤석민도 1억9천만원 재계약



서재응

KIA 타이거즈의 돌아온 ‘컨트롤의 아티스트’ 서재응이 지난해보다 3000만원 인상된 3억3000만원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외야수 이종범과 투수 윤석민은 연봉이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 삭감됐다. KIA타이거즈가 24일 서재응, 이종범, 윤석민 등 3명과 2011시즌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올 시즌 3.34의 방어율로 9승7패를 기록한 서재응은 3억원에서 10% 인상된 3억3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이종범은 2억6000만원에서 7천만원 삭감된 1억9000만원에 연봉 협상을 마쳤다.

연봉을 백지위임한 윤석민은 2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된 1억90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윤석민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실례를 끼쳐드리고 팀의 4강진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반성의 의미로 백지위임을 하게 됐다”며 “내년 시즌에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팀 우승에 힘을 더해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 명의 선수와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KIA는 2011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2명중 47명과 재계약(재계약율 90.4%)을 마쳤다. 미계약자는 양현종·김희철·한기주(이상 투수), 외야수 이용규, 포수 김상훈 등 5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훈현 9단(오른쪽)이 24일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대주배 시니어최강자전에서 라이벌 서봉수 9단과 대국을 하고 있다. <한국기원제공>

조훈현 8년만의 우승

대주배시니어 바둑최강자전 ... 라이벌 서봉수 2-0 꺾어

‘바둑 황제’ 조훈현(57)이 라이벌 서봉수를 누르고 7년11개월만에 타이틀을 획득했다. 조훈현 9단은 24일 성동구 흥의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대주(大舟)배시니어최강자전 결승3번기 제2국에서 동갑 라이벌 서봉수 9단을 맞아 흑으로 266수만에 2집반승으로 이기며 종합전적 2-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바둑판을 앞에 두고 통산 365번째 마주 앉은 두 바둑 노장은 평소 기풍과는 달리 차분한 집차지 바둑을 두었고 중앙 타가에 성공한 조훈현이 집에서 앞서며 완승을 이끌어냈다. 조훈현은 8강전, 준결승에서 고재희 8단과 권갑용 8단을 각각 19집반과 12집반의 대차로 제압한데 이어 결승1국에서도 14집반의 큰 차이로 서봉수를 제쳤다. /연합뉴스

오늘 승리로 조훈현은 시니어무대에 서는 아직도 자신이 황제임을 알렸다. 역대전적도 246승120패로 늘었다. 두 라이벌의 70번째 타이틀전대치였던 이번 결승에서 조훈현이 승리하면서 타이틀전 성적도 57-13으로 더욱 벌어졌다. 두 사람이 시니어대회 타이틀을 놓고 겨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우승으로 조훈현은 2003년 1월에 제7회 삼성화재배에서 우승한 후 7년 11개월만에 자신의 158번째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부문 2위 이하로 9단의 140회를 18회 앞서는 세계최고기록이다. 통산 1837승째를 올려 전란 1364승으로 일본최다승자로 올라선 조지훈 9단보다 473승 앞서는 세계기록도 작성했다. 대주배는 만50세 이상의 프로기사 57명이 참가했다. 우승상금은 700만원이다. /연합뉴스

여자핸드볼 한국인 감독 대결

강재원 한국 VS 윤태일 카자흐 오늘 결승

제13회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은 한국인 감독이 지휘하는 팀들의 대결로 열린다. 강재원(46)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윤태일(47)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25일(한국시간) 밤 8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발루안살락 경기장에서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강재원 감독과 윤태일 감독은 경희대 선후배 사이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합작해냈다. 당시 강재원 감독은 공격의 에이스로, 윤태일 감독은 명 골키퍼로 힘을 모아 한국 남자핸드볼의 전성기를 함께 만들어냈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 중국

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고, 카자흐스탄은 이번 대회 참가한 8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4연승을 거두며 결승까지 진출했다. 양팀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맞붙어 한국이 25-17, 38-26으로 모두 이겼다. 하지만 한국은 아시안게임 이후 어린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에 합류했고 7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간판으로 활약했던 유은희(20·인천시체육회)가 무릎 부상, 이은비(20·부산시철관리공단)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3회 연속 아시아선수권 우승을 노리는 한국으로서는 카자흐스탄의 홈 이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만큼 두 한국인 감독의 광범한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고교생 신궁 김우진 세계 영스타 19걸

중국 신화통신 선정



김우진

한국 양궁의 ‘차세대 대들보’ 김우진(18·충북체고)이 중국이 선정한 세계 스포츠 최고의 영스타 반열에 들었다. 김우진은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표한 2010년 가장 주목받은 젊은 선수 명단 전체 19명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신화통신은 “열여덟 살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양궁 144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활약상을 요약했다. 김우진은 지난달 20일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부 예선에서 4개 거리 개인싱글(144발)

합계 1387점을 쏘아 오진혁이 보유한 세계 기록 1386점을 경신했다. 명단에서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득점왕과 신인왕에 오른 토마스 뮐러(21·독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에서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 된 세바스티안 베텔(23·독일), 미국프로농구(NBA)에서 거물급 신인으로 활약한 존 월(20·워싱턴 워저즈)과 등이 주목됐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